

SK, 석유사업 부진 순이익 85% 감소

2003년 3Q, 매출액 전년동기대비 5% 증가 그쳐 ... 영업손실 524억원

SK의 3/4분기 경영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.

SK는 2003년 3/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5% 증가한 3조42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은 524억원, 경상이익 150억원으로 각각 65%와 86% 감소했다.

3/4분기 석유 사업 비수기의 영향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마진 약화로 석유 사업의 영업이익이 다소 약세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.

SK의 경영실적(2003.3Q)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03.3Q	2002.1-3Q	2003.1-3Q	증감률
매출액	30,042	97,029	101,459	5%
영업이익	-△524	2,307	798	▽65%
경상이익	150	6,754	935	▽86%
세전이익	150	6,754	935	▽86%
당기순이익	*105	4,820	**727	▽85%

* 2003년 3/4분기 당기순이익은 세전이익에 법인세율 29.7%를 적용해 단순 산출한 수치(변동 가능)

** 2003년 3/4분기 당기순이익(누적)은 3/4분기 당기순이익에 반기순이익에 단순 합산한 수치(변동 가능)

† 전년동기대비(누적기준)

그러나 화학사업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거두고 윤활유, 석유 개발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0조1459억원, 영업이익은 798억원(SK네트웍스 관련 대손 반영 전 6976억원)을 달성했다.

SK 관계자는 “석유 사업은 국제 정세 마진이 강세를 지속하고 수입상들의 활동이 약화되는 등 전년보다 개선된 영업환경을 보이고 있으며, 화학사업은 원가 대비 제품가격의 강세 지속으로 영업이익 호조세가 이어지고 윤활유와 석유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1/04>